chosun.com 인쇄하기

"우리 눈높이에 맞춰 쉽게 독도를 알리고 싶었어요"

곽래건 기자 rae@chosun.com

입력 : 2011.08.15 03:04

독도 책 펴낸 고교생들

"우리 땅 독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더 알리고 싶어서 만든 책입니다."

경기도 용인외고 **강승문**(17)군과 **김효준**(17)양, 서울 대원외고 **윤석호**(18)군, **변시영**(18)군, **신혜연**(18)양, **유소윤**(18)양은 독도 문제를 다룬 책 '동북아의 영토 문제 : 대결에서 화해로'를 펴냈다. 청소년들 눈높이에 맞춘 독도 관련 서적이나 자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독도 책'동북아의 영토 문제 : 대결에서 화해로'를 낸 학생들. 왼쪽부터 윤석호, 신혜연, 변시영, 유소윤, 김효준, 강승문. /강승문 제공

강승문군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너무 어려워 머리에 잘 안 들어왔다"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독도 문제를 두루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올 1월부터 발간을 준비해온 이 6명은 6월에는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박정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이면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 등 전문가들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인터뷰했다.

책에는 일본의 영토 분쟁 지역인 대만과 오키나와 사이의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4개섬)에 대한 정보와 일본과 영토 갈등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들의 입장과 대처 방식도 담았다. 국제법적 고찰,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영토 분쟁사도 알기 쉽게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했다.

유소윤양은 "독도는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를 해온 점에서 일본의 다른 영토 분쟁 지역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책 판매를 통한 수익금은 전액 독도 관련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인쇄하기 취소